제주에서 펼쳐질 '연극의 향연' 준비 박차

■ '제41회 대한민국 연극제 제주' 한달 앞으로
전국 16개 시·도 대표 극단 본선 경연작 확정
이성민·장영남·양미경 등 홍보대사 6명 위촉

극단 가람의 '울어라! 바다야' 공연 장면.

전국 연극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연극의 향연 '제41회 대한민국 연극제 제주'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집행위원회 상황실이 분주하다.

집행위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 대표극단의 본선 경연작이 확정되고 부대행사 프로그램 참가팀들도 속속 선정됨에 따라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남은 한 달 출정식, 홍보 현수막 게시 등 보다 많은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연극제'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제41회 대한민국 연극제 제주 집행위원회는 15일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최근 확정된 16개 시·도 대표 극단 본선 경연작(공연순)은 ▷극단 창작극회의 '꿈속에서 꿈을 꾸다' (전북) ▷극단 가람 '울어라! 바다야' (제주) ▷극단 푸른가시의 '간절곶' (울산) ▷극단 둥지의 '끝나지 않은 시간' (경북) ▷극단 청예의 '밀정의 기록' (충북) ▷프로덕션 IDA의 '배소고지 이야기' (서울) ▷극단 미암의 '아칸토스테가' (전남) ▷극단 에테르의꿈의 '무좀' (대구) ▷극단 십년후의 '애관! 보는 것을 사랑하다' (인천) ▷극단 둥지의 '천사를 보았다' (충남) ▷극단 새벽의 '산책:신채호의 삶과 사랑이야기' (대전) ▷부산연극제작소 동녘의 '1945' (부산) ▷극단 좋은친구들의 '빌미' (광주) ▷사단법인 극단미소의 '난파, 가족' (경남) ▷극단 파.람.불의 '옥이가 오면' (강원) ▷극단 한울의 '불멸의 여자' (경기)다.

본선 경연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대한민국연극제 최초로 극단별 2일 셋업·1일 2회 공연으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과 소극장, 제주아트센터 대극장, 블랙박스 공연장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BeIN;(비인) 등에서 펼쳐진다. 경연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41회 대한민국 연극제 제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대한민국 연극제 홍보대사로 배우 최주봉·김종구·양미경·김뢰하·이성민·장영남 등 6명이 위촉된 가운데 이들의 6월 15일 개막식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집행위는 홍보대사들의 소장품을 기증받아 도민, 관객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구상 중이다. 개막식 날엔 사인회 또는 관객과의 대화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오롯이 제주 배우들과 함께하는 제주 을묘왜변과 치마 돌격대 이야기를 다룬 개막공연작도 기대를 모은다. 이우천 예술감독은 영상, 음악, 조명, 안무, 역동적인 움직임 등 연극의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관객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화려하게 만들어보려 한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독특한 시선에 비친 제주 풍경

김재봉 작 '신엄해안'

김재봉 작가 세 번째 개인전
18일까지 문예회관 1전시실

"숲의 반짝이는 나무 그늘과 숲의 그림자. 석양을 받은 푸르른 나무의 빛나는 잎사귀와 보라색 그늘, 그리고 주황색 땅. 이것은 나를 끌어당긴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려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작가노트 중)

'제주풍경'을 연작하고 있는 제주 출신 서양화가 김재봉 작가가 세 번째 개인전을 열고 자신의 시각으로 재현해낸 제주 풍광을 선보이고 있다.

'어린 시절의 나처럼 그리고 싶다'를 주제로 내건 이번 전시엔 '고사리꺾기' 등 30여 점이 내걸렸다. 자연 대상을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기 보다 자신만의 시각으로 기하학적으로 면을 분할하면서 형태로 관찰하고 해석한 작가의 작품은 이달 18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제35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제주 서예가 7명 입선

(사)한국서예협회가 주최한 제35회 대한민국서예대전에서 제주 서예가 7명이 입선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한국서예협회 제주도지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제35회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 결과 제주지역에서 ▷예서부문 조길제·임경미 ▷해서부문 고종국·김성훈·부희경 ▷행초부문 강시호 ▷문인화 부문 이상순 씨가 각각 입선을 차지했다. 이번 서예대전엔 총 3028점이 출품됐으며, 1차 심사 및 2차 채점 심사와 휘호심사가 진행됐다.

시상식은 6월 10일 한국미술관(서울 인사동)에서 열릴 예정이며, 같은 장소에서 입상작 전시(6월 7~20일)가 진행된다.

한편 대한민국서예대전은 신인들의 서예적 소양과 능력을 평가하는 등용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탐라주의 시(詩) 읽는 화요일 (19)

치자꽃 향기

박홍점

작년 여름에는
아기 주먹만한 꽃 툭툭 불거져
집안을 채우던 향기
연초에 투가리 같은 아내를 먼저 보내고
하루하루를 치자나무에 걸어두는 노인
살뜰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집요한 눈길 뿌리치지 못했는지
천길 달려와
해거리 하려다 그만두고 딱 한 송이
한평생 무능력을 원망하며
돌아앉아
저 왠수 죽지도 않는다고 푸념하더니
마주 보고 앉아 무슨 얘기 나누는 걸까
꽃도 노인도 오금 저리는 오후

삽화=써머

아내가 투가리도 되고 치자꽃도 되는 것은 내 '생각' 때문이지만 "하루하루를 치자나무에 걸어두는" 것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내의 죽음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고정된 현실이 꿈의 여인처럼 치자꽃으로 변신하는 그 생각 속에서 남편은 못다 한 얘기를 마저 나눌 수 있다. 이 시에서 꽃과 노인이 오금을 저리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둘을 연결시켜 주며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잔허(殘墟)처럼 남은 희미한 사랑이다. 그런 자각과 방불한 것으로도 읽힌다. 내 사랑이 내 사랑을 피운다. 내 사랑만 확인된다면 '너'는 가장 아름다운 하얀 치자꽃이 되리. <시인>